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백배나 받고 영생도 받자 성경: 마가복음 10장 23-31절

Tag:

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막10:23-31)

오늘 말씀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다. 반면에 반전의 비결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표현은 결코 불가능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렵다. 어려운데, 보통 어려운게 아니고, 심히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는 말씀에 좌파는 스스로 넘어진다. 성경은 이처럼 좌파가 해석하면 스스로 올라가에 걸리는 구절이 많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 맥락도 전혀 좌파스럽지 않은 말씀이다. 딱 한 곳만 꼭 짚어서 사상을 세우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는 사도행전 2장(44-45절)의 말씀도 상황을 파악하면 금방 좌파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굳이 그 말씀을 좌파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쓴다.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첫째, 자율적이었다는 것이 핵심. 둘째, 사도들이 선동하지 않음. 셋째 강요하거나 빼앗지 않았다.

-넷째, 부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다.

-다섯째, 바나바를 시기해서 재산을 바친 아나니아 삽비라는 천벌을 받았다. (공산당은 모두의 것을 빼앗아 자기는 배 터지게 먹고 인민은 굶어죽지 않을만큼 나누어 주었다.-이게 팩트다.)

<부자의 기준> 10년 전 2011년에는 50억(금융자산만), 2020년 기준은 70억. (지금은 75억?)

현재는 부동산 부자는 부자로 여기지 않는다. 부동산 거지도 있다. 당장 가용 현금 부자가 찢 부자. (2022년 현재 현금 부자는 약 42만 4000명-가용현금 10억이상인 자. 전국민의 0.82%)

부자일 경우 1%(0.1%?, 0.01%...4240명~42명?)정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가난할 경우 대체적으로 60%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일까?

아무도 그 백분율을 가늠하지는 못한다. 다만 부자일 경우 매우 어렵다고 하셨으니, 가난할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가 부자보다는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퍼센티지가 과거보다는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면 부자나라에 개신교인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부자나라가 세계선교에 더 힘쓴다. 엄밀히 따진다면 역사적으로 선교에 힘쓴 나라가 더 부강해졌다.

그래서 본문 말씀 앞 부분만 딱 떼어서 말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꼴이 된다.

아무튼 이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제자들은 대부분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도 높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욕구일 뿐이다.)

세상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부자일 경우 갖게 되는 기회와 능력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보다 부자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훨씬 크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초인적으로 더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

마약을 모르던 때는 마약 없이도 잘 살지만, 마약에 중독된 자들은 마약 없이 못 산다. (돈도 마약일까?)

또한 과거보다 부에 대한 연구가 깊어졌고, 방법도 많이 개선되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현재도 부자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인터넷 신문 (시사cast 2021, 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 47, 한국에서 부자란?;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34185>)

부자의 기준은 자산 외에 무엇이나?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자산이겠지만, 자산 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 관계(22.4%), 사회적 관계(15.7%), 사회적 지위(15.2%), 사회공헌(9.8%)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 :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43.3%)

줄부 금지: 아무리 돈이 많다고 가족에게는 신경쓰지 않고, 나홀로 독불장군처럼 군림하거나 잘난척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를 위해 도울 줄 알고, 옛말로 마치 예의 바르고 덕있는 양반집 어른을 부자라고 인정한다고 들린다. (딱 보니 개신교 스타일 부자들)

줄부는? :1.몇 천억을 가졌다고 여기저기 떠들며 천박함을 널리 티내는자, 2.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스크루지 영감들도 있다. 3.돈은 많은데 쓸 줄은 몰라서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돈 한번 쓸 때마다 벌벌 떨면서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4.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쳐내며 뱀의 눈으로 남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비하면 진짜 부자는 욕과 같은 사람(욕기 29장 오늘 제자훈련에서 공부하게 됨)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럼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

1.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아님)

2. 어떻게 하면 부자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자 되려는 욕심은 나쁜 것이다? No!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More NO!!!)

어떻게 하면 부자도 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누구든지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거둬낸 영혼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다. 복음은 단순하다. 죄와 저주를 끊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이제 당신은 맘껏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두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 하셨다.

죄와 저주 문제만 해결 된다면 사람이 부자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와 저주를 지닌 채 부자가 되니까 졸부 된다. (빌라왕들은 모두 거지)

십자가가 없을 때는 99.99%의 부자들이 졸부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십자가로 죄와 저주가 해결된 자들은 졸부가 되는 운명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책에 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각 정부마다 원하는 사업이 있고, 계획이 있다. 정부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시민들을 유인한다. 그 계획에 적합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장려혜택, 성과급, 유인책)를 부여한다.

-하나님 나라/하나님 정부의 정책은 무엇일까? 제일 우선적으로 삼는 정책은? 그 정책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무의미한 정책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

-사람들에게서 죄를 씻고 저주를 끊어 내는 것이 제일가는 정책이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이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셨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뭔가 막히는 사람은 전도하라.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전도하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가?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라.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을 마련해 주신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차 고치는 간증)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부동산, 식구, 자녀, 사업-이 세상에 부자로 살려면 필수적인 것 4가지.(진정한 부자는 이 네가지가 필요하다)

-이 필수적인 4가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우선순위에서 차선순위에 두라.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전도가 우선순위, 4가지가 차선순위.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

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백배 받는다. (최대한)

-단, 박해도 견하여 받는다.(그러니 갑질보다 박해를 받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는 내세에 영생(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막10:23-31)

-왜 먼저 된자가 나중되나? 믿다가 타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저주 가운데 최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는 자들도 많다.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조만간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많다. 실망하지 말고 기
도하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읍처럼 살자 성경: 욥기 29장

욥이 경건한 부자의 모델.

Tag:

1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자기의 지난 삶을 예를 들어 말하기 시작했다.

-라떼 이야기. 한 때 화려했던 이야기.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
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자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는 부자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
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장막, 집안이 형통함; 자녀가 많고 자녀들이 다 유복함

5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자-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함.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부자-나도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중
요함.

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
아냈으며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한 부자

7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이름; 지역의 유지가 됨. 지역의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됨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이 숨었다;두려워 함 (동네 깡패들)

-노인들은 일어났다;존경

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부자 앞에서 말을 조심함

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지도자들도 굽신거림

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평판이 좋음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약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방관하지 않는 읊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3 비참하게 죽어 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욥29:13) <표준역>

-저주받은 자들에게 조차 칭찬을 받음

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정의의 기준을 따라 삶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장애인의 친구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가난한 자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자의 변호인

17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

느니라

-악한 자에게는 강한 자, 악을 보고 그냥 방치하지 않음

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자기확신이 큼

19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19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욥29:19) <표준역>

-나는 뿌리 깊은 나무 같다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20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욥29:20) <표준역>

-자신감도 대단함

21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지도력이 있음

22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설득력이 있음

23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반기는 자가 됨. 환영받는 자가 됨. 사람들이 욥이 오기를 기다림.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4 저들이 용기를 잃었을 때,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 주면, 저들은 내 얼굴의 광채를 귀하게 여겼지. (욥29:24) <쉬운성경>

-롤 모델이 됨, 본받을 만한 대상이 됨.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보다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
았느니라 (욥29:1-25)

-리더와 위로자가 됨.

반전은 30장

-인생 자체가 반전이다.

*부자는 되어도 자랑할 것은 없고, 가난하게 되어도 초라할 것은 없
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것은 위험을 피해 안전 하려는 본능일 뿐.

*부끄러움을 피해 의젓 하려는 본능일 뿐이다.